

第三編 廣州府의 人物

廣州府 人物은 1929년 조선박문사에서 발행한 「朝鮮各道邑誌」의 경기도 편중 廣州府를 모두 전재한 것이다.

文化는 인간 생활의 총체이고 역사는 인간에 의해 전개되는 것이라면 광주부에 등재된 인물 寓居 節義 孝子 烈女등은城南의 뿌리와 관련된 인물들로서 널리 밝혀져야 하기 때문에本書 제3편에 넣는 것이다. <편집자 註>

第三篇 廣州府의 人物

1. 沿革

百濟南漢山城이니 始祖溫祚王이 自慰禮城으로 移都之하고 近肖古王이 又移都南平壤城(今京都) 이러니 及唐蘇定方에 功滅百濟하고 唐師還에 新羅漸收其他하야 改漢山州하고 又稱南漢山州하고 文武王時에 築長城하야 或稱日長山하고 景德王時에 改漢州하고 高麗初에 改廣州하고 成宗時에 初置十二牧하니 州其一也요 後置節度使하야 號奉國郡하야 隸關內道하고 顯宗時에 廢爲安撫使하고 後定八牧에 復爲牧하고 本朝因之하야 隸京畿左道하고 世宗時에 置鎭하야 管驪州牧利川郡護府楊根郡 陰竹陽智砥平竹山果川五縣하고 置牧使兼兵馬僉節制使判官兼兵馬節制都尉教授 一人하고 燕山時에 革本州러니 宣祖初에 復舊하고 從以州調弊로 革判官하고 仁祖時에 兼防禦하고 又移邑治于山城하야 又兼討捕使하고 又陞府尹하고 肅宗時에 又兼守禦副使라가 復爲府尹하고 肅宗時에 又兼守禦副使라가 復爲府尹하고 又陞留守하야 兼守禦使하고 罷府尹爲經歷하고 移前營將於驪州하고 又罷留守經歷하야 復置府尹兼防禦使討捕前營將하고 又兼守禦副使라가 復爲府尹하고 英祖時에 置留守兼守禦使하고 以府尹爲經歷하고 移前營將於利川이라가 又罷留守하고 還說府尹하야 兼滯如舊하고 正祖時에 復置留守兼守禦使하고 置判官이다.

2. 人物

〈百濟〉

高興은 自開國以來로 未有以文字記事러니 高興이 爲博士하여 始有書記라.

〈高麗〉

○安邦傑은 州人이 作亂에 邦傑이 倡義討平之하고 又奏捷于平壤하니 麗太祖封廣陵君하여 賜籍廣州하니 爲安氏始祖라.

○安器는 邦傑之後니 官吏部尙書하고 麗末에 退居咸安鄉庄不仕라 子國柱는 官中郎將이니 還咸安再徵不起하고 國柱子岡은 本朝召以察訪不就라.

○李集은 字浩然號遁村이니 文科官典校判事하고 爲廣州李氏上祖라.

○李養中은 字子精號石灘이니 集之族이라. 官叅議하고 本朝拜南漢府尹不受라.

○趙仁規는 官都僉議司事封平壤君諡貞肅이라.

○漢宗愈는 號復齊니 文科官議政 府院君諡文節이라.

〈朝鮮〉

○安省은 文科官開城府留後諡思簡이라.

○李之直은 集之子니 文科官刑曹叅議라.

○李之剛은 之直之弟니 文科官左叅贊諡文肅 이라.

○李之柔는 之剛之弟니 文科官星州牧使라.

○李長孫은 之直之子니 文科官舍人이라.

○李仁孫은 長孫之弟니 文科官右議政諡忠僖라 五子登科하여 顯于時라.

○李禮孫은 仁孫之弟니 文科官黃海道觀察使라.

○李克培는 仁孫之子니 文科叅佐翼功臣官領議政 封廣陵府院君諡翼平이라 子世弼世匡이 皆旌孝라.

○李克堪은 克培之弟니 文科叅佐理翊載功臣官刑曹判書封廣城君諡文景이라.

○李克增은 克堪之弟니 文科叅佐理翊載功臣封廣川君諡恭良이라.

○李克均은 克增之弟니 文科官左議政하고 燕山甲子에 被害라.

- 李世佐는 克堪之子니 文科官判書하고 燕山甲子에 被害라. 弟世佑는 官觀察使라.
- 李玷은 文科官判尹諡文安이라.
- 李蓀은 養中曾孫이니 文科參靖國勳漢山君官贊成諡胡簡이라 子粹彥이 文科官舍人而早歿하고 誠彥은 文科參靖國勳漢平君官兵使하고 曾孫遵仁은 文校理라.
- 李知는 州吏니 通籍爲義州通判이라.
- 李寬義는 號栗亭이니 知之子라 薦授栗峯察訪에 卽辭歸라.
- 安完慶은 文科官至大司憲하고 瑞宗遜位에 被死라. 全慶은 文科參議하고 濬慶은 參判이니 俱顯時라.
- 安彭命은 省之孫이니 文科官司諫하고 選兼吏라.
- 安潤孫은 省之增孫이니 文科官大司憲이라.
- 安潤德은 省之曾孫이니 文科官知樞諡翼憲이라. 燕山甲子에 謫金堤하고 中宗時에 充副元帥하야 討薺浦倭라.
- 安靚는 器之後니 號苔巒이라 受業于金점필재하고 文科官司諫이라. 安遇는 受業于 金점필재하고 薦除六品職이라.
- 李滋는 字樹德이니 世佐之子라 文科官咸昌縣監하고 燕山戊午禍起에 從飲死하니 年三十四라. 李英符는 禮孫之曾孫이라. 文科官掌令하고 中宗己卯에 削職歸鄉하야 年二十五에 死라, 子首慶은 文科官校理하야 明宗丙午에 謫은城하고 重慶은 文科官吏曹參判하고 選廉吏라.
- 李英賢은 禮孫之曾孫이니 文科官刑曹參判이라. 李延慶은 字長吉號灘叟니 世佐之孫이라. 文科官校理라 燕山甲子에 配南漢하고 中宗己卯禍起에 退歸라.
- 李潤慶은 字重吉이니 文科官兵曹書諡文獻이라 燕山甲子에 年七歲니 與弟浚慶으로 謫遠君이라. 浚慶은 字元吉號東臯니 潤慶之弟라 文科官領議政諡忠正하고 選清白吏라.
- 安曾은 購之子니 文科官刑曹郎이라.
- 李若水는 中宗己卯禍作에 以進士로 爲疏頭救黨人하야 流禮山死라.
- 李若永은 號樽岩이니 若水之弟라 文科官韓山郡守라 己卯에 罷하고 明宗時에 疏言入魯山燕山二主之祀하고 雪福城君之冤하야 推罷라. 弟若海는

文科官直堤學하고 與羅滉羅淑으로 同被死라.

- 安景佑는 官聞慶縣監하고 見오柳子光하야 謫三水라.
- 安士雄은 潤孫之孫이니 文科官丞旨다. 曾孫士徵은 字于遠이니 文科官參議라.
- 李遠慶은 號松菴이니 禮孫之玄孫이라.
- 安仲善은 省之後라 薦授尙衣直長이라. 子曇은 受業于 趙靜菴하고 官察訪이라. 孫敏學은 號楓岨니 薦授僉正이라.
- 安容은 省之後니 與兄寬으로 俱登科하야 官黃海監司하고 寬은 官正이라.
- 李德馨은 字明甫號漢陰이니 文科官領議政하고 宣祖壬辰에 致中興하야 名動三國하고 光海時退居龍津이라. 子如璜은 文監司하고 孫象乾은 文兵曹正郎하고 曾孫允修는 文監司하고, 允文은 文執義하고 允明은 文校理하고, 玄孫善仁은 文奉教하야 并顯時라.
- 安滉은 潤德曾孫이니 官敦寧都正綠扈聖勳 贈刑曹判書廣陽君이라. 德興大院君之婿니 宣祖欲官而軌辭하고 竟不弟라. 子應元은 文正言하고, 應亭은 文判하고, 孫獻規獻徵은 顯時하고 曾孫後昌 後稷 後高 後泰는 俱登文科이라.
- 李廷立은 號溪隱이니 時茂之子라 從李栗谷 成牛溪學하고 文科官兵曹參判이라. 子원담은 文科라.
- 李潤雨는 號石潭이니 禮孫之玄孫이라. 從鄭寒崗學하고 文科工曹參議라. 子道長應球, 孫元禎은 門吏曹判書하고, 元綠은 文大司憲하고, 曾孫담命은 文吏曹參判하고, 漢命은 文校理하고, 基命은 官司藝라.
- 安餘慶은 號玉川이니 구之孫이라. 無子하야 以從祖兄子璿로 爲后하니 璿字待而요 號藥圃니 文科官郡守하고, 孫翊漢은 仁祖丙子에 倡義하야 聞講和痛而歸하고, 璿兄범은 字待之요 號五休子니 宣祖壬辰에 以軍功官軍器副正이라.
- 安時聖은 應元之子니 官郡守라. 弟時賢은 文科官弼善하고 與吳俊, 黃호等으로 世號八學士라. 子信行, 敏行號霞山, 允行, 普行, 健行이 俱登司馬하야 仁祖丙子後에 不赴科하고, 孫瑞雨는 號兩葉齋니 文科官僉知하고, 曾孫栻은 文科官正言이라.
- 安獻徵은 號子浦니 文科官監司라.

- 李必行은 號天徹居士니 浚慶之曾孫이라. 文科官相禮하고 仁祖丙子後에 屢邦應教皆不就라.
- 李귀는 蓀之玄孫이니 文科官副堤學하고 追緣扈聖勳封漢川君이라.
- 具誠은 受業于金점필재하고 官刑曹正郎이라. 燕山戊午에 被찬이라.
- 蔡世英은 號任眞堂이니 文科官叅贊이라. 中宗己卯에 坐廢라가 蒙放이라.
- 具之愼은 誠之子니 文科官典翰이라.
- 洪純彥은 榮光國 策封唐陵君이라.
- 吳允謙은 居秋爲號라. 師事成牛溪하고 文科官領議政이라.
- 李義健은 號峒隱이니 以親命赴舉司馬하고 薦授官正郎하고 親歿不仕라.
- 趙涑은 號滄江이라. 父守倫 號風玉軒이니 光海時에 連累權石洲詩案而死 하니 涑이 慟父非命하야 舉議之時에 實多協贊하야 欲緣勳에 固辭不受하고 官進善이라. 書法墨妙俱盡其蘊이라.
- 李厚源은 義健之從孫이니 文科綠靖社勳官右議政封完南府院君諡忠貞이라.
- 趙翼은 號浦渚니 文科官領議政諡文孝라. 子復陽은 號松谷이니 文科官吏曹判書諡文簡하고, 孫持謙은 字光甫號迂齋니 文科官副堤學이라.
- 柳諱는 字秀源이니 以行誼로 薦授官至昌平縣令하고 宣祖壬辰에 爲權都元帥從事官이라.
- 鄭演은 字士益이요 號七休堂이니 大年之孫이라. 進士官縣監이라.
- 尹知敬은 字幼一이요, 號滄洲니 文科官監司라. 祖渠는 號風灘이니 進士後에 廢舉業하고, 父覃茂는 官副學이라. 仁祖反正에 知敬이 與李德洞으로 明燭乃拜라.
- 尹鏞은 字純夫요 號夢溪니 知敬之子라. 文科官吏曹參判이라. 子深은 字玄通이니 文科官兵曹判書라.
- 金克亨은 字泰之號沙川이니 繼之孫이라. 以經學薦官至和順縣監이라. 子澄은 文科官監司하고 孫構는 文科官右議政하고 유는 文科官參判이라.
- 李濡은 字子雨니 文科官領議政諡惠定이라.
- 李濟는 字景仁이니 濡之從弟다. 文科官平安監司라.
- 朴昌漢은 字漢卿이니 文科官承旨라. 兄昌殷은 字殷卿이요 號聞說菴이니 絕意進取하고 勸諭鄉俗이라.

- 韓泰東은 字魯瞻이요 號是窩니 文科官校理라.
- 金幹은 字直鄉이요 號厚齊니 忠伯之曾孫이라. 師事朴玄石하고 兼遊宋尤菴門하고 薦授官至左叅贊이라. 弟栽는 官府使하고 孫致垢라.

3. 寓居

〈高麗〉

- 趙云□는 登第官判典校寺하고 退居本州하야 本朝에 授江陵府使하니 尋辭歸하고 又拜檢校堂文學에 不受祿이라.

〈朝鮮〉

- 朴繼生은 文科官黃海觀察使라.
- 趙秋는 官藝文館直堤學이라.
- 鄭誠謹은 文科官承旨라. 成宗喪에 獨行三年하니 燕山甲子에 以詭行殺之라.
- 卞亨良은 官弘文正字라. 中宗己卯에 坐廢退居本州라.
- 鄭曄은 文科官左贊成이라. 光海廢母議起에 力求爲襄陽府使하야 獨免庭請이라.
- 任叔英은 號疎菴이니 文科官持平이라. 光海時에 削黜居本州하니 李植鄭百昌이 亦棄官遜居上流하야 三人이 相友善하니 人謂江上三士라.
- 任有後는 字孝伯이요 號晚休니 文科官戶曹參判이라.
- 權認는 字惠仲이요 號炭翁이니 薦授官至右尹이라. 己亥禮論에 忤時議罷歸本州라.
- 丁時述은 字汝癡이요, 號寓隱이니 以行誼薦官至宗親府典簿라.
- 許淮는 字巨源이요 號漁隱이니 進士하야 光海政亂에 棄京歸本州하고 以孝贈執義라.

4. 節義

〈高麗〉

○趙狷은 初名胤號松山이니 高麗官知申事하고 朝鮮朝에 綠開國勳平城府院君諡平簡이라.

〈朝鮮〉

○李時茂는 字君遇니 克培之後나 官判決事라 宣祖壬辰에 老不扈駕이고 守墳山하야 敵至不去하야 遂被害하니 時에 子廷立, 孫玄□은 扈從하고 一門이 盡投前潭而死라.

○李尙安은 字靜而니 集之後라. 武科官江界府使라. 仁祖丁卯에 與南以興으로 遇賊同死安州하야 贈贊成諡忠愍이라.

○崔廷傑은 武科折衝이니 仁祖丙子에 戰死南漢하야 贈兵曹判書라.

○許格은 號滄海니 淮之子라 丙子亂後에 加平朝宗里에 刻崇禎御筆思無邪하고 海州首陽山에 建夷齊廟하고 言論激烈하야 忤時罹厄하야 在本州獄十年이라. 贈吏曹參議라.

○李保晩은 集之後라. 丙子廢科하고 自稱 大明居士하야 與許格相友善하니 人謂雙節士라.

○金尙憲은 字叔度號清陰이니 文科官領議政諡文政이라. 丙子에 力主斥和하야 至被執北去에 終不屈이라.

○鄭蘊의 字輝遠號桐溪니 文科官吏曹參判書諡文簡이라. 丙子에 斥和하야 至援劍自刺腹이라.

○洪翼漢은 字伯承號花圃니 文科官平壤府尹하고 丁丑에 以尺和로 與尹集 吳達濟로 被執至藩陽하야 不屈而死하니 世稱三學士라 贈領相諡忠正이라.

○尹集의 字成伯號林溪니 文科官校理贈領相諡忠貞이라.

○吳達濟는 字季輝니 文科官校理贈領相諡忠烈이라.

5. 孝子

- 韓述은 五歲에 父死하여 母死에 服喪六年하니 給腹旌閭라.
- 鄭守明은 以孝給復旌閭라.
- 鄭誠謹은 見上하니 以孝旌閭라.
- 鄭舟臣은 誠謹之子니 慟父非命하여 食而死하니 旌閭하고 弟梅臣及梅臣子元麟元□, 元麟子孝誠이 俱以孝旌閭하니 四世六人이라.
- 具效慎은 之慎之弟니 以孝聞하여 命官不就하니 旌閭라.
- 李旻은 官別堤라. 父碩亨이 宣祖壬辰에 爲 嶺谷懸令하여 旻이 與弟昇으로 俱從焉하니 日兵이 陷城에 兄弟以身救父하여 父全而子俱死하니 旌兄弟之閭하고 贈左承旨라 旻妻李氏至終祥日에 遂自決하여 亦旌閭하고 昇妻康氏는 隨父在豐德하여 聞夫死에 投海而死라.
- 李時雨는 字濟卿이니 旻之子라 以孝贈掌樂正旌閭라.
- 安大禎은 潤孫之玄孫이라 壬辰에 賊欲害其父어늘 大禎이 乞以身代한대 賊并害之라.
- 安載는 子仲厚니 省之後라. 年十二에 父病斷指回 하여 旌其門曰十二歲孝子安堤之門이라.
- 洪百順은 字士吉이니 奉世之孫이라. 官縣監贈承旨하고 旌閭라.
- 金忠伯은 字君恕니 人勸之仕한대 不肯曰奉養恐不專也라. 壬辰에 失母하여 號器奔走에 冒死求□하니 賊이 見其至誠하고 乃解而慰遺之하여 贈戶參議라.
- 許淮는 見上이라.
- 姜遇昌은 贈戶曹佐郎이라.
- 金錫은 贈持平이라.
- 具滌은 旌閭라.
- 南澈은 旌閭라.
- 李道明은 贈持平이라.
- 朴世儁은 文科官參判하고 旌閭라.
- 金鎬는 與弟용으로 至孝하여 人稱之以二連이라.
- 安□은 字子伯이니 孝誠出天하여 人皆感服하고 育三女皆有孝行하여 鄉

里稱爲孝家安氏라.

- 昌興君修는 宣祖王孫이라 以孝加資하고 子高平君澈이 亦以孝旌閭라.
- 李義健은 見上이라.
- 權授는 字天卿이요 號雲谷이니 進士하고 薦授官縣監이라.
- 金碩勛은 字讓叔이니 絕意舉業하고 以孝行卓異로 贈持平이라.
- 南泰廷은 字延之니 進士하고 贈持平이라.
- 內隱伊는 私婢니 盜入殺人에 內隱以身蔽父하야 意與父俱免하니 給復旌閭라.
- 愼氏는 宋를妻니 以孝女旌閭라.

6. 烈女

〈百濟〉

都彌妻는 美而賢하야 盖婁王이 聞之하고 留都彌以事하고 夜抵其家하야 欲私之한대 其妻請更衣而飾一婢薦之하니 後에 王이 知見欺하고 大怒하야 誣都彌以罪하야 矐其兩目 하야 置小船泛之江하고 更引 其妻한대 曰今妾夫亡하니 妾身이 不能自保라 敢爲王辭이요. 但今有月事하니 請의他日하노이다. 王이 許之러니 其妻逃之江口하야 號天痛哭하니 忽有行舟至하야 泊泉城島에 其夫已先泊矣라 遂同奔高句麗하니 麗人이 哀之하야 置蒜山下하야 以終其이라.

〈朝鮮〉

- 李氏는 成景溫妻니 燕山時에 其夫遠謫遇害하야 返葬廬墓하고 素食白衣 終身하니 旌閭라.
- 安氏는 鄭世祿妻니 旌閭하고 其弟는 李彥忱妻니 亦旌閭라.
- 安氏는 尹濟之妻니 丙子亂에 其夫彼盧어늘 遂自縊死하야 旌閭라.
- 李氏는 許稷之妻니 丙子에 稷이 入南漢하고 率子女避至黔丹山에 賊至어늘 拔佩刀自裁하야 旌閭라.
- 南氏는 林希選之妻니 丙子殉節하야 旌閭라.
- 金氏는 鄭友益妻니 丙子에 避兵春川相失이러니 友益夢에 金氏來言曰 吾屍在於牛頭牛某岨下하니 從草偃處來覓云하야 往尋則屍在縣岨下에 背

負乳兒하니 顔貌如生하고 裙帶에 有血書曰遭難奔避에 得全難必이라. 死後顔面이 如得舅姑則死猶生矣로라. 葬日에 復夢告曰正月二十五日은 是吾死日云하야 詢問千同時避兵者에 月日不異라 旌閭라.

- 柳氏는 安道□妻니 家火에 抱神主而死하야 旌閭라.
- 兪氏는 具龍瑞妻요 薛氏는 具聖揆妻니 家火에 兪薛二氏冒火入祠하고 婢德伊亦隨入하야 俱死하니 并旌閭라.
- 邊氏는 李塤妻니 盜入에 捍夫冒刃得免하야 旌閭.
- 李氏는 姜澤妻니 旌閭라.
- 李氏는 李廷柱妻니 旌閭라.
- 金氏는 李碩弼妻니 旌閭라.
- 李氏는 南澈孫婦니 旌閭라.
- 金氏는 李光翼妻니 歸未暮에 其夫死하니 十有七月에 意自盡하야 旌閭라.
- 林氏는 李後恒妻니 夫喪에 終制自決하야 旌閭라.
- 李氏는 朴湛妻니 盜入에 其夫奔求老母어늘 李氏替受賊刃而死하고 湛與老母得生하야 旌閭라.
- 黃氏는 安挺妻니 夫死에 絶食七日而死하야 給復이라.
- 宋氏는 鄭德懋妻니 夫死에 自縊死하야 旌閭라.
- 申氏는 李塿妻니 舅與夫俱死於疫에 欲自引하니 塿弟址器曰母病에 又欲何忍爲此오 感其言하야 至誠事姑라가 姑死殯殮에 遂自裁하니 旌閭라.
- 安氏는 李載俊妻니 其夫患疫甚劇에 遂自縊이라가 爲婢辛今所救解러니 夫意死에 遂投江死하니 辛今이 亦隨而溺死하야 旌烈女忠婢兩門이라.
- 洪氏는 金若淵妻니 夫死에 絶食九日不死하야 至二十三日에 遂自縊死하니 旌閭라.

7. 逸事

〈高麗〉

- 李唐은 州吏니 五子俱登科에 集이 其第三子라. 初名元齡이니 當以抗直으로 忤辛旽하야 將捕殺之어늘 竊負其父唐하고 晝伏夜行하야 投于永川

이러가 眈誅始遠하야 改名集하고 自是로 無行世之意라.

〈朝鮮〉

- 李雲龍은 靖陵守護軍이라 陵卒이 傳言壬辰陵變에 陵卒이 皆散호대 雲龍이 獨留不去하고 匿石矯下하야 目見賊徒凶悖하고 收拾灰燼以獻之하야 用公除本陵叅奉하고 反其死에 葬于火巢外라.
- 魯協은 居南漢之하니 丙子前에 協이 路逢一武人하니 招協登城周覽하고 指一大巖하야 以葛도量度하고 謂協曰城雖陷而免屠戮者는 賴有此耳니라. 協이 欲與歸家則不從하고 飄然而去하니 一云非魯協也라. 乃虜協官東萊府使者也요 武人은 卽朴震龜爲也니 震龜爲 金塗軍官하야 嘗進一木龜曰用此則可當一面하리라. 塗以爲迂竒而却之하니 盖震이 屬木故로 自呪而言世라 到南漢하야 密謂所親曰此城이 數年後에 當有奉天之厄하니 我未及見이로다. 乙亥에 震龜死하니 官宣傳官이라.
- 徐欣男은 私奴니 以盖瓦鍛鐵로 爲業하고 或爲巫覡하고 或爲商賈하야 人皆賤之라. 丙子에 南漢受圍하야 聲息難通이라. 體府募人에 某應者어늘 欣男이 自願持諭出去하야 衣百結之衣하고 裁裂諭旨하야 標其次第而索之하야 纏結衣袴하고 蓬頭垢面으로 手持一破匏하고 縋城而下하야 入敵陣에 佯若病人하고 匍匐而行하니 有一人이 張黃傘하고 坐鐵片上하야 以炭暖其下하니 此必是汗也라. 憐其行乞하야 賜以食에 不用하고 以口就食하며 放矢於坐하니 賊益不疑라 俄而膝行以前하야 反其稍遠敵陣然後에 起而疾走하야 遂傳命於三南江原道하고 還過又如前하야 踰棚入城하니 賊始疑慮하야 移陣三田渡하니 自此로 屢傳命入敵陣하야 備暗 虛實이라 朝廷이 嘉其功하야 許令免賤하고 除訓練主簿하고 加通政階라.
- 孟元賓은 仁祖入南漢時에 山谷氷路峻滑하야 駕不得前이라 元賓이 伏地請獻其馬하야 王이 御之하고 無事入城하니 遂除職官至朔州府使라.

〈軍官〉

姓□名不傳이라. 汗이 日登汗峯하야 □城中하니 王이 募能射者한대 李時白軍官一人이 應募에 年未二十이라 射에金甲者하니 乃汗之妹夫也라. 厚加賞賚라 後에 清名醫하야 送吏後聖하니 汗이 命視其妹病하야 其女言其夫死於南漢하야 思念成疾云이어늘 後聖이 舉手而愈하니 此是軍官之所射殺者妻也라.